

『가웨인과 녹색기사』의 지리적 상상력: 위털의 숲

강 지 수

인하대학교

크리스마스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아서 왕의 궁정에 들이닥친 녹색기사는 가웨인이 자신의 도전을 받아들여 내리친 도끼에 목베임을 당한다. 그렇지 않아도 거인같은 체격에 피부와 머리털, 그리고 타고 온 말까지 온통 녹색이어서 웬만큼 경이로운 일에는 내성이 생겼음직한 아서왕의 기사들도 이미 “환영이거나 마술”(fantoum or faery, 240)¹일 것이라는 추측밖에 하지 못할 정도로 낮설고 위협적인 외모를 갖춘 녹색기사였는데, 이 순간 그는 녹색의 기사라는 사실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의 또 다른 충격을 선사한다. 머리가 잘려나가고 피가 솟구쳐 녹색의 몸을 흘러내리는데도 그는 당당하게 걸어가 굴러간 머리를 바닥에서 집어 든다. 그리고는 말 등에 올라타 잘려나간 머리를 높이 쳐들고 거기에 붙은 입으로 가웨인에게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가웨인이여, 그대는 약속대로 떠날 준비가 되어야 하노라.

나를 만날 때까지 성실하게 찾아다녀야 할 걸세.

이 연회장에서 이 기사들이 다 들고 있는 가운데 그대가 약속한 것처럼 말이야.

¹ 『가웨인과 녹색기사』의 인용은 Andrew and Waldron을 따른다. 번역은 필자 번역.

내가 지시하거늘 그대는 녹색 예배당을 찾아오게나. 그대가
내게 가한 것 같은 일격을 받으리 말이지. 그대는 그렇게
새해 첫날 신속하게 되받을 자격이 있어.

녹색 예배당의 기사라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찾으려고 나서기만 하면 실패하지 않을 걸세.

그러니 오게나. 아니면 그대는 겁쟁이라 불리기에 딱 맞지.

Loke, Gawan, þou be grayþe to go as þou hettez
And layte as lelly til þou me, lude, fynde
As þou hatz hette in þis halle, herande þise knyȝtes.
To þe Grene Chapel þou chose, I charge þe, to fotte
Such a dunt as þou hatz dalt—disserued þou habbez--
To be ȝederly ȝolden on Nw ȝeres morn.
þe Knyȝt of þe Grene Chapel men knowen me mony;
Forþi me for to fynde, if þou fraystez, faylez þou neuer.
þerfore com, oþer recreaunt be calde þe behoues. (448-456)

가웨인은 앞서 그에게 어디에 살고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한 해 뒤에 최선을
다해 그를 찾아가 그의 일격을 받겠노라 약속한 바 있다(381-385, 398-403). 그런
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도전자는 모호하게 가웨인이 찾아 올 곳은 녹색 예배당이
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녹색 예배당의 기사로 알고 있다고만 밝혀준다. 이 말을
마친 녹색기사는 머리카로 거머쥔 머리는 한 손에,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고삐를
잡아당기고 말머리를 돌려 연회장에서 유유히 사라진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거기 있는 사람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들 누구도 결코 모르는 것처럼.

To quat kyth he becom knwe non þere,
Neuer more þen þay wyste from queþen he watz wonnen. (460-461)

460행은 로맨스에서 요정처럼 신비롭거나 초자연적인 존재가 돌연 사라지는 것
을 묘사할 때 흔히 쓰이는 공식구 같은 표현이나, 여기서는 461행에서 볼 수 있듯
이 출현에까지 그 효과를 확장시켜 농음으로써 이 구절은 녹색기사의 출신지와

정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흥미로운 것은 그 해 초겨울, 가웨인이 녹색기사와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위치가 밝혀지지 않은 녹색 예배당을 찾아 나서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른 아닌 영국의 북서부 지역, 구체적으로는 시인 자신의 방언 지역인 체셔로 향한다는 것이다.²

이제 이 기사는 로그레스를 지나...
 웨일즈 북쪽 지역 가까이 갔다.
 앵글지의 섬을 모두 왼쪽으로 하면서 나아가다
 그 곳들 옆에 있는 도강지에서 물을 건너 곳이
 홀리 헤드였고 반대편 강둑으로 옮겨가니
 야생의 숲 워털이었다.

Now ridez þis renk þurȝ þe ryalme of Logres...
 Til þat he neȝed ful neghe into þe Norþe Walez.
 Alle þe iles of Anglesay on lyft half he haldez,
 And farez ouer þe fordez by þe forlondez;
 Ouer at þe Holy Hede, til he hade eft bonk
 In þe wyldrenesse of Wyrle. (691-701, 필자 강조)

카멜롯에서 출발해 북쪽으로 향한 가웨인의 여정은 웨일즈의 북쪽 해안에서 동쪽으로 꺾여 앵글지의 섬들을 왼쪽으로 두고 진행된다. 홀리 헤드에서 디강(River Dee)을 건너 최종적으로 도달한 곳은 체셔에 있는 워털이다.³ 중세 로맨스에서 실제 지명이 언급되는 경우가 흔치 않을 뿐더러 여기서처럼 지명과 함께 사실적인 지형 묘사까지 제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것도 많은 현대 독자들을 실제로 영국의 북서부 지역으로 답삿길에 오르게 만들고 시인이 지칭하는 지형물이 어디에 있는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⁴ 뿐만 아니

² 가웨인 시인의 북서부지역 방언에 대해서는 McIntosh, Putter and Stokes 2007 참조.

³ Barratt은 최근 이 시에 대한 비평, 특히 Ingham처럼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비평들이 당시 명백히 로그레스, 즉 영국 땅이었던 체셔와 식민지 웨일즈를 분리해서 고려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다(Barratt 136-145). 『가웨인과 녹색기사』를 체셔와 웨일즈에 걸쳐져 있는 경계지역의 텍스트로 보는 견해는 Knight 참조.

⁴ 소위 '가웨인의 영토'(Gawain country)라 불리는 이 지역의 지형에 대해서는 Elliott 참조.

라 699-700행에서 반복되는 정관사는 시인과 독자에게 모두 익숙한 지형임을 암시한다.⁵

한편 일단 시인이 야생지, 혹은 황야라고 묘사한 위렬에 도달한 후부터 가웨인이 디디는 곳은 그전까지와는 다른 곳이다.

기사는 험준한 경사길을 여러 차례 오르며
 낮선 길로 나아갔다.
 그 예배당을 찾을 때까지
 그는 수도 없이 두리번거렸다.⁶

Ʒe knyȝt tok gates straunge
 In mony a bonk vnbene,
 His cher ful oft con chaunge
 Ʒat chapel er he myȝt sene. (709-712)

위렬의 숲에 이르러 갑자기 주위는 익숙지 않은, 낮선 길들이 된다. 이 사실을 강조나 하듯 이어지는 행에서 시인은 이곳을 다시금 “낮선 지역”(contrayez straunge)이라 한다. 여기서부터는 불특정한 언덕과 절벽과 강과 폭포가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선명하던 지형은 흐릿해지고 더 이상 실재하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웨인은 이 공간에서 훗데저트(Hautdesert)를 발견하고 녹색 예배당도 찾게 되며 버틸락과 녹색기사를 만나게 된다. 위렬에서 이어지는 숲으로 들어서면서부터 가웨인에게 지형은 낯설어질 뿐 아니라 더 험해지고 여정은 더 위험해진다(720-724). 이 시에서 위렬은 개간되지 않은 야생지일 뿐 아니라 용과 거인이 출몰하는 신화적인 곳이다. 시인이 “낮선 곳”으로 묘사하는 이 지형은 역설적이게도 로맨스 장르에서 매우 익숙한 상상 속의 원시림이다.⁷ 14세기 후반에

⁵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청자와 독자를 포괄적으로 독자로 지칭한다.

⁶ “Cher”는 ‘표정’ 또는 ‘기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711행은 그동안 “표정이나 기분이 계속 바뀌었다”고 주로 번역되었으나 매우 유사한 구문을 가진 이 시의 2169행(“And oft chaunged his chere Ʒe chapel to seche”)이 명백하게 그 예배당을 찾기 위해 시선을 여기저기로 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Putter and Stokes 2014, 660).

⁷ 중세 로맨스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숲의 양상에 대해서는 Saunders 참조. 가웨인이 숲에서 만나는 신화적인, 그리고 실제의 위협에 대해서는 이 책의 148-155 참조.

실재하던 워털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은 물론이다. 워털은 원래 나무가 울창한 지역이 아니었으며 1370년대에 개간되었을 뿐 아니라 14세기 후반 워털에는 체스터(Chester)의 성 워버그(St Werburgh) 수도원 원장처럼 이 지역의 대표적인 지주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 있었던 곳이다(Barratt 137-138). 이 작품의 시기를 14세기 후반 언제로 추정하든 그 시대에 페나인 산맥 기슭에 있는 언덕 어디에도 괴물이나 야생인이 산다고 믿는 체셔 사람은 없었다.⁸ 가웨인의 모험의 지리적 배경은 이렇듯 실재하는 지역과 상상속의 공간이 혼재된 곳이고 이 시에서 황야, 야생지라 일컬어지는 워털이 양쪽에 걸쳐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텍스트는 가웨인이 가상의 숲을 여행하지만 그 가상의 여행은 실제 워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워털의 야생의 숲(wylderensse of Wyrle)”의 다층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야생의 숲은 아서왕 로맨스 전통에서 기사의 모험과 함께 성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문학적 공간이 『가웨인과 녹색기사』에서는 시인의 출신 지역이자 이 시가 쓰인 시기인 리처드 2세(Richard II)의 제위기간 중 왕권의 지지기반으로 런던과 함께 영국 정치사의 중심에 있었던 역사적 체셔의 한 지역에 형성되었다. 14세기 후반에 널리 알려진 워털의 이미지는 야생의 숲이었기 때문에 체셔가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변방으로 상상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적절하게 사용된 제유법이다. 그런가 하면 “wylderensse”라는 단어에 함축된 부정적 이미지는 리처드의 노골적인 편애로 인해 체셔에 적대감을 가지게 된 외부, 특히 런던의 시선을 지리적 상상력으로 재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시에서 야생의 숲은 개간, 정복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궁정의 일부로 안착시켜야 하는 공간으로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야생의 숲 워털이 대변하는 가치는 야성이며 야생의 존재인 버틸락/녹색기사는 젊은 기사 가웨인이 대표하는 궁정적 성취를 치하하면서 또한 제고하기 위해 야성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조력자 및 안내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워털의 야생의 숲”은 묘하게도 카멜롯과 야생의 숲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를 카멜롯이 연상시키는 리처드 2세의 궁정과 체셔의 관계로 확장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제공한

⁸ 가웨인 시인의 작품이 쓰인 시기는 1360년대부터 1400년 사이인 것은 분명하나 좀 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본 논문에서 추정하는 시기는 리처드 2세의 제위기간으로 1380-1390년대임.

다. 가웨인 시인은 그의 작품들에서 긍정적 가치와, 각종 의식과 물질을 통한 그 가치의 외형적 현시를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는데 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궁정문화의 축진을 열렬하게 추구했던 리처드의 왕실에 대한 옹호적 입장으로 볼 수 있다(Mann). 야성을 통한 긍정성의 확장이라는 주제가 ‘암묵적인’ 체서를 배경으로 하는 로맨스 문학에서 어떤 지리적 상상력으로 전개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1. 변방 중의 변방?—야생지로서의 체서

『가웨인과 녹색기사』가 수준 높은 문학작품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받는 정도에 비해 볼 때 이 작품과 관련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은 매우 적다. 시의 언어가 체서 지역 방언이고 유일하게 시가 보존된 필사본(Cotton Nero, A. x)에서 방언상의 불일치나 수정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시인과 필사의 방언이 같고 따라서 시인은 북서부 미들랜드(Northwest Midland) 지역, 더 구체적으로 체서 출신이고 창작시기가 필사본 제작 시기인 1400년경보다 많이 앞서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가 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시에서 언급된 실제 이 지역의 지명과 이 지역에 대한 정확하고 사실적인 지형 묘사 때문에 시의 발원지를 이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좀 더 확실해졌다. 가웨인 시인의 작품들이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북서부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영국 고유의 두운시 형식을 띠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동안 많은 독자들은 이 시의 주제를 지방 중심의 영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런던중심의 프랑스푼 궁정문화와의 경쟁구도에서 이해하였다. 그러다 이러한 대결 양상이 근거가 희박한 독법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는데 이런 비평적 전환에는 중세 후기 체서와 랭케셔 사회를 연구한 역사학자 베넷(Michael Bennett)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Bennett 1983, 1997).

베넷은 중세 후기 이 지역에서 가웨인 시인이 다루는 주제에 관심을 갖거나 그의 문학적 수준에 이르는 작품을 쓸 만한 작가를 후원하거나 그런 작품을 즐길 수준의 독자가 있을 만한 지역문화의 중심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베넷에 의하면 다름 아닌 리처드 2세가 아버지인 흑태자

(The Black Prince)에 이어 체스터의 백작이었고 무엇보다 체셔와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1380년대 말과 1390년대 왕은 체스터(Chester)에 있는 영지와 이곳 출신 병사들을 권력의 토대와 충성스런 인적 지지기반으로 삼았다. 여기서 특별히 의미있는 것은 리처드 왕이 체셔 지역에서 수천명에 달하는 수해군인을 스카우트했는데 이들 중 수백명의 궁수를 선발해 개인 경호병으로 삼았고 그들은 왕이 가는 곳마다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왕의 임기 마지막 15년 동안 그를 에워싸고 있었던 사람들은 체셔 출신 군인들이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와의 접경 지역에 있어 군사적으로 급변하는 사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셔는 랭캐셔(Lancashire)와 함께 일찍이 지역의 백작이 왕권을 부여받은 팰러틴 백작령(County Palatine)이었다. 지리적 특성상 예로부터 전쟁과 군사 방어에 동원되는 군인을 다수 배출한 체셔는 영국의 대표적인 모병지 중의 하나였고 특히 이 지역의 궁수가 유명했다. 군인으로 출세해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된 사람들은 런던을 포함한 영국 전역뿐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체류했으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일랜드와의 무역의 요충지였고 당연히 웨일즈 북부나 컴브리아(Cumbria)와 영국 사이에서 이동하는 물자나 상인들이 모두 체셔를 지나다 보니 체셔 사람들 역시 영국의 모든 주요 도시로 진출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발달이 늦은 지역이다 보니 외지로 나가서 성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체셔 상인들을 영국 전역으로 진출시킨 배경이었다(Putter 1996, 31). 세력가의 후원, 부와 명예를 위한 기회에 있어서는 물론 런던을 따라올 곳이 없었다. 런던 뿐 아니라 대륙의 문화까지 향유해 본 체셔와 주변지역 사람들이 가웨인 시인의 일차적 독자라는 것이 베넷의 주장이다(Bennett 1997, 81-82).

체셔를 향한 리처드 2세의 총애는 전폭적이었다. 체셔에 토지, 관직, 사면 등 온갖 혜택을 집중시키고 그곳에 며칠씩 체류도 했던 리처드는 급기야 1397년 특권령 영지였던 체셔를 공국으로 승격시키고 자신이 체스터의 군주가 되었다. 이곳을 향한 왕의 애정은 체셔가 보낸 철저한 충성심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체셔에 대한 왕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런던에서의 적개심은 커졌다. 체셔 출신 신하들에 대한 왕의 명백한 편애는 결국 그의 폐위를 정당화하는 조항에도 오르게 된다(Saul 393-394). 물론 이것 아니어도 1380년대 중반부터 의회는 리처드 궁정의 과도한 사치와 국고 낭비를 막기 위해 그의 주변에 있는 참모들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여러차례 단행했다. 유럽 전역에까지 잘 알려진 리처드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과 왕과의 친분을 빌미로 국고를 횡령한 측근들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커지고 런던에서의 리처드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수록 리처드 주변에 체셔 출신 대신과 군인들은 늘어났다. 리처드 왕 시대에 왕의 정적들이었던 많은 런던의 귀족들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받던 체셔는 리처드의 폐위 이후 그간 받았던 혜택만큼의 보복을 받게 된다. 최근에 와서는 많은 학자들이 가웨인 시인을 리처드 2세를 따라 대거 런던으로 이주한 집단의 일원으로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의 작품들은 런던에 있는 청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는 왕궁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까지 강력하게 대두되었다(Bowers 2001, Mann).

이렇듯 리처드 제위기간 중 뜻하지 않게 영국 정치 현실의 중앙에 있다시피 했던 체셔는 사실 좋지 않은 기후와 메마른 토양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난하고 미개한 변방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해안지역은 물이 빠지지 않는 축축한 땅이었고, 중간지대는 무거운 진흙이었으며, 고지대는 추위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았다. 런던에서의 거리와 군사문화의 발달은 이곳이 오지라는 인상과 함께 물리적 힘이 앞서는, 통치가 어려운 곳이라는 인상을 주었다(Bennet 1983, 8-9). 리처드 2세에게 비판적이었던 월싱햄(Thomas Walsingham)이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 성 알반스(St Albans) 연대기에서 “과거의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체셔인들은] 병사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왕국의 다른 백성들보다 통제하기가 더 어렵다”고 기록했는데 체셔인들에 대한 이런 인상은 또한 1300년대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무장 반란과 소요사태에 기인했다(Bennet 169-171, 164 재인용).⁹ 1390년대 말에서 1400년대 초 사이에 쓰인 『충고를 듣지 않는 리처드』(*Richard the Redeless*)는 제대로 된 자문을 구하지도 않고 조언을 하려 해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처럼 묘사된 리처드와 그의 실정을 비판한 두운시다. 여기서 언급된 “체스터의 싸움꾼”(chyderys of Chester, 317)은 궁정 비방자들에 의해 제멋대로이고 폭력적이며 타락했다고 묘사되는 체셔 경호병들의 이미지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록 체셔가 변창하는 상공업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특권령

⁹ 리처드 2세와 헨리 4세(Henry IV) 제위기간에 대한 가장 자세한 연대기를 집필해 이 시대 연구에 중대한 사료를 제공한 월싱햄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Stow 참조. 그가 리처드 2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은 1390년대 중반부터 갑작스럽게 나타난 변화이고 리처드가 폐위 되고 헨리 4세가 왕권을 쟁취한 후 그는 랭캐스터 왕조의 시각에서 예전의 기록을 수정했다.

지역으로 왕국의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정체성과 자부심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이곳이 변방의 야만적인 지역으로 상상될 수 있는 근거 또한 체서의 현실이 어느 정도 제공했을 뿐 아니라 편견을 부추길 런던의 적대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해 있었다.¹⁰ 1393년 런던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리처드 2세는 일시적으로 고등법원을 포함한 몇 개 기관을 요크(York)로 옮긴다. 월싱햄은 노골적으로 이것이 런던에 대한 왕의 증오심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더 나아가 왕은 아예 런던을 없애버리고 체스터로 옮겨가 그곳에서 웨일즈와 아일랜드는 물론 영국까지 통치할 계획을 했기에 실험적으로 단행한 이전이었다고 기록한다(Walsingham 290). 리처드 2세가 체서 출신 경호병들과 지위와 체통을 지키지 않고 충격적일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케닐워스(Kenilworth) 연대기 작가가 전하는 유명한 일화에 의하면 리처드는 자신의 사병들이 체서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다 알아 들었다(Bennett 1997, 86 1996, 22). 영국의 왕이 오지의 방언이라 여겼던 『가웨인과 녹색기사』의 영어를 이해했다는 것이다.

1120년에서 1123년 사이에 라눌프 르 메신(Ranulph le Meschin) 백작에 의해 사냥터로 지정된 위렐은 1376년 개간지로 법적 지위가 바뀌었다(Rudd). 야생지와 개간지의 법적, 행정적 구분이 엄격했던 이 시대에 위렐이 실제로 야생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웨인 시인이 구태여 문명의 밖에 있음을 의미하는 황야처럼 묘사한 것은 시인이 의도적으로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며 무법지라는 체서에 대한 이미지를 따라준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상 속의 야생지 위렐은 로그레스에서 원시림으로, 그리고 다시 핫데저트로 연결되는 서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명 세계와 비문명 세계의 경계에 있다. 이러한 설정은 위렐이 영국의 변방이며 경계에 있다고 여겨지던 체서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게 한다.

“체서는 영국의 경계에 있다”는 것은 다른 아닌 14세기 영국 최고의 역사가였으며 체서 주민이었던 레널프 히든(Ranulf Higden)이 그의 보편사 역작, 『폴리크로니콘』(Polychronicon)에서 한 진술이다(Lavezzo 73, 재인용).¹¹ 대륙의 서쪽

¹⁰ 리처드의 편에는 “작은 집단의 신하들의 애정을 쟁취해 그들이 끝까지 왕의 곁을 지켰지만 그외 다른 모든 신하들의 애정을 장악하는 힘은 약화시켰다” (Saul 445).

¹¹ 히든(1280-1363)은 체스터에 소재한 성 위버그(St. Werergh)의 수도원에서 『폴리크로니콘』을 집필했다. 히든이 영국의 변방성을 강조한 데는 자기 고향인 체서의 변방성에 대한 인식이 미친 영향이 크다. 중심과 주변에 관련된 히든의 사관에 대해서는 Lavezzo 73-75

끝에 있는 영국이 문명 세계의 변방에 있다는 지리적 입지에 주목한 히든의 상상 속에서 영국의 서쪽 끝에 위치한 체셔야말로 변방 중의 변방이었다. 그런데 히든에게는 변방이란 중심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야만성과 유익성을 두루 포괄하고 있었다. 유대교와 기독교 및 서구 고전 전통에서는 문명의 세계와 경계를 이루는 곳을 야생의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실제로 인간의 정착지와 지리적 경계를 이루었던 사막, 숲, 바다 등을 일반적으로 야생지 혹은 황야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상상하였다.¹² 구약시대나 기독교 시대에 사막이 물리적으로 위험한 곳이었을 뿐 아니라 죄악이 가득하고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는 곳이었다면 고전고대 시대에는 울창한 숲이 사막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경작지와 도시의 경계 너머에 있는 야생의 숲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측면에서 접경하는 문명의 공간과 뚜렷한 대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한편 고전시대에는 야생의 숲을 사냥고 잔혹하게만 보지 않고 경이로운 곳으로 상상하기도 했다.¹³ 숲의 여신 다이아나는 순결의 신이면서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위대한 자궁이라는 정체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처녀림은 문명의 모체로서 경외감과 감탄의 대상이기도 했던 것이다.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야생의 숲이 공포의 대상이자 동시에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였다.¹⁴ 구약시대의 황야, 즉 사막은 육체적, 도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신의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정확, 구원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했다. 황야 교부들의 고행에 대한 기록을 보면 황야는 물리적, 영적 전투지지만 사나운 짐승이나 악령과의 싸움을 이겨내기만 하면 그 어디에서도 가능하지 않은 전심으로 신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위험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국 황야는 신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며 제물이 선포한 것처럼 낙원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었다(Dyas 29). 변방, 경계의 개념은 황야의 지형을 덧입어 위협적이면서도 유익한 것, 이상화되기도 하면서 회피의 대상이 되기도 했기에 이

참조.

¹² Le Goff, 강지수 93-95.

¹³ 고대 숲의 여신인 그리스의 아르테미스와 로마의 다이아나에 대해서는 Harrison 21-23쪽과 Lavezzo 17쪽 참조. 플라톤 철학에서 다루는 숲의 양면성은 Saunders (hyle, salva 설명 부분) 참조.

¹⁴ 성경에 나오는 황야의 다양한 의미와 이것이 황야 교부(desert fathers)들에 대한 기록과 후대의 영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Dyas 참조.

런 전통을 계승한 중세 유럽 문화에서 변방은 이런 상반된 의미를 모두 함축하고 있었다. 희든이 체서를 영국의 끝자락이라고 여긴 데에는 지리상으로 변방에 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영국과는 별도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체서는 특권령이었기에 스스로 영국과는 다르다는 인식 하에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속력이 다져졌고 그들은 독자적인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희든은 자신의 연대기 곳곳에서 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표현하면서 접경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드러낸다. 변방의 지리적 타자성은 한편으론 야만성과 위험을 의미했지만 또 한편으론 잠재적인 독립과 주권을 의미했다.

가웨인이 체서에 도착한 이후부터의 지형은 울창한 야생의 숲이다 (a forest ful dep, þat ferly watz wylde, 741). 이곳은 분명 최고의 궁정문화를 대표하는 아서의 영토와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고전 전통과 유대교 및 기독교에서 모두 어떤 형태로든 문명의 타자였던 황야에 대해 양가적 관점을 취한다는 사실은 『가웨인과 녹색기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웨인이 도달한 야생의 숲에는 경작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만난 사람들에게 물었다.
 근처에 있는 그 어느 곳에서건
 녹색 기사나 녹색 예베당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를.
 그런데 그들은 모두 아니라고 답했다.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녹색의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결국.

And ay he frayned, as he ferde, at frekez þat he met
 If þay hade herde any karp of a knyȝt grene,
 In any grounde þeraboute, of þe Grene Chapel;
 And al nykked hym wyth 'Nay!'--þat neuer in her lyue
 Þay seȝe neuer no segge þat watz of suche hwez
 of grene. (703-708)

더구나 모두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706)는 대목은 가웨인이 만난 사람이 상당히 많았으며 카멜롯에서 멀리 떨어져 있긴 해도 그리 낮은 곳에 와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곳은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웨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외지이며 편력 기사에게 당연하듯 위협적인 적들이 길을 막는 적대적인 곳이다.

그는 낮은 지역에서 많은 절벽을 올랐고
 동료들과 멀리 떨어져 외지인으로 길을 갔다.
 그가 물을 건널 때마다
 길을 가로막는 적이 있었으니 무시무시한 놈들이었다.
 사악하고 사나운 적들이었으므로 당연히 싸워야 했다.
 산에서 너무도 많은 놀라운 일을 감당해
 그가 한 고생의 십분의 일도 이야기하기 힘들다.

Mony klyf he ouerclambe in contrayez straunge,
 Fer floten fro his frendez fremedly he rydez.
 At vche warþe oþer water þer þe wyȝe passed
 He fonde a foo hym byfore, bot ferly hit were,
 And þat so foule and so felle þat feȝt hym byhode.
 So mony meruayl bi mount þer þe mon fyndez,
 Hit were to tore for to telle of þe tenþe dole. (713-719)

사악하고 사나운 공격자에는 용, 늑대, 야생인, 황소, 곰, 멧돼지, 거인 등 실재하는 짐승과 신화 속의 괴물이 모두 포함된다. 모험 길에 오른 로맨스 주인공들이 숲에서 흔히 만나는 존재들이지만 여기서는 유난히 많이 열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¹⁵ 그러다 보니 두세 가지만 나열되어 있을 때보다 사실적인 존재와 판타지적인 존재의 혼재가 더 선명하게 부각된다. 그런가 하면 713행의 ‘straunge’도 원래 문명과의 거리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 오히려 이와는 상반되게 연회에 나오는 호화로운 요리부터 정교한 갑옷, 난해한 텍스트 등 극도로 세련된 문화적 성취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무심하거나 적대적인 것도, 놀랄 만큼 비범하고 경이로운 사건에도 사용된다 (MED, “straunge”). 훗테저트가 나타나기 직전까지 가웨인에게 낯설게 보이는 이 숲의 풍광 묘사는 그러나 분명 여타 로맨스에 비해 극도로 사실적이다.

¹⁵ 다른 로맨스의 사례는 Putter and Stokes 2014, 661 참조.

아침에 그는 산을 끼고 부지런히 나아갔다
 경이롭고 울창한 야생의 깊은 숲으로.
 높은 언덕이 양 옆을 가리고 뺨뺨한 삼림이 아래에 있는데
 그곳에는 허연 오크나무 큰 것들이 수백그루 모여 있었다.
 개암나무와 산사나무가 모두 함께 엉켜있고
 거칠고 우둘투둘한 이끼가 사방에 퍼져 있었다.
 많은 새들은 앙상한 가지 위에서
 추위의 고통을 처량하게 노래하며 불행해했다.

Bi a mounthe on þe morn meryly he rydes
 Into a forest ful dep, þat ferly watz wylde,
 Hiȝe hillez on vche a halue and holtwodez vnder
 Of hore okez ful hoge, a hunreth togeder.
 Þe hasel and þe haȝþorne were harled al samen,
 With roȝe raged mosse rayled aywhere,
 With mony bryddez vnblyþe vpon bare twyges,
 Þat pitosly þar piped for pyne of þe colde. (740-747)

이 숲은 문명과 야성을, 현실과 비현실을, ‘정상’과 ‘비정상’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워렐은 로맨스에 흔히 등장하는 관례적인 모험의 장소인 불특정한 야생지의 한 명칭에 불과하기도 하고, 실제 지명 사용과 사실적인 지형 묘사 때문에 시인이 실제로 가 봤을 수도 있는 역사적인 워렐, 그리고 체셔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와는 별도로 상상 속의 변방 북서부 미드랜드 지역의 체셔를 간접적으로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다.

가웨인이 워렐에 이르자마자 시인이 그곳에 대해 가장 먼저 제공하는 정보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그곳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이나 인간을 사랑하는 자는 거의 없었다.

Wonde þer bot lyte
 Pat auþer God oþer gome wyth goud hert louied. (701-702)

문명과 동떨어져 이런 황야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이나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중세 유럽에서 숲은 범법자들의 피신처였다. 숲이 사냥터로 지정되면 야생의 상태를 유지하고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침입자를 엄격하게 단속했는데 그렇다 보니 숲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대목은 다소간의 구문상의 모호함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신이나 선한 사람들에 의해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¹⁶ 이 구절이 14세기 워털의 사회적 문제였던 치외법권의 범법자들을 암시한다는 것은 새비지(Henry Savage)가 오래 전에 지적했고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바로 이 범법자들 때문에 워털에서는 체셔의 백작인 흑태자(Black Prince)에게 숲의 개간을 요청했고 이것이 그의 부왕 에드워드 3세에 의해 수용되어 실제로 법적으로 시행된 것이 1373년이 었다. 14세기 워털과 런던 왕실 사이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워털 숲의 개간 문제였다. 런던 사람들에게 각인된 워털의 이미지는 야생의 숲이며 범법자의 소굴인데 시인은 이런 이미지의 워털이 체셔를 대표하게 한다. 가웨인이 산넘고 물건너 온 영국을 다 거쳐 머나먼 이국땅에 온 것처럼 묘사된 여행 끝에 도달한 곳이 바로 시인과 그의 일차적인 독자들의 고향인 체셔인데 이것은 그들의 시선이 아니라 체셔를 외지와 오지로, 경계와 회의의 대상으로 바라본 런던 사람들의 시선에 입각한 것이다. 이 시는 체셔에 대한 오독과 오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적으로 재현하면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안에 내재된 편견을 교묘하게 긍정적인 기사의 덕목으로 치환시킨다. 미개한 야생지로 묘사되는 체셔 어딘가에 있는 성에서 오히려 오독과 오해의 대상이 되는 카멜롯의 기사 가웨인은, 그러나 이 지방의 성주에게 자신이 미처 인정하지 못한 큰 덕목과 성과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찬사를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완벽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받는다.

¹⁶ 두운시 형식상 “with good heart”를 형용사가 아닌 부사로 보고 전자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나 Andrew and Waldron을 포함해 후자로 해석하는 연구자들도 여전히 많다.

2. 인위적 야생지-사냥터

로맨스 상상 속의 야생의 숲을 지나가는 가웨인 앞에 버틸락의 성은 매우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성호를 세 번 긋자마자 숲속 약간 높은 곳, 언덕 위에서 나무들에 둘러싸인, 해자가 있는 성을 발견했는데 기사가 소유한 성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었다 (Nade he sayned humself, segge, bot þrye/ Er he watz war in þe wod of a won in a mote, / Abof a launde, on a lawe, loken vnder bo3ez.../ a castel þe comlokest þat euer kny3t a3te" (763-765, 767). 바위 곳곳에 뒤엉킨 이끼 낀 산사나무가 불과 4행도 지나지 않아 언덕 위의 멋진 성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훌륭한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카멜롯의 특사인 가웨인이 감탄할 정도로 그에게 익숙한 궁정적 환경이라는 것이다. 버틸락의 궁정은 성의 정교한 건축양식부터 대표적인 궁정의 활동, 즉 축제, 사냥, 그리고 궁정식 사랑에 이르기까지 결코 카멜롯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과 세련됨을 보여준다. 야생의 존재 같은 초록의 거구가 사는 곳 같아 이곳에 왔는데 가웨인이 만난 사람은 뜻밖에도 평범한 지방의 성주였다. 야생의 자연에서 정교한 건축물로, 위험에서 안전으로, 낮쌌에서 친숙함으로의 이런 순식간의 변화는 이것이 실제 변화의 서술이기 보다는 인식의 차이나 각성의 순간을 재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리처드 2세가 과도하게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것을 좋아하며 그의 왕실이 특히 궁정문화의 연출과 과시에 몰두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Mathew). 그런가 하면 가웨인 시인의 4개의 작품 중 『가웨인과 녹색기사』뿐 아니라 『진주』(Pearl), 『정결』(Cleanness) 모두 궁정성의 장엄하고 호화로운 현시가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특징을 바워스는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리처드 2세 궁정의 “기사도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가웨인과 녹색기사』에서 눈부시게 전시되는 풍부한 디테일은 [리처드 2세] 왕궁의 사치스런 풍요에 상응하는 것이다... 제3부(Fitt 3)에서 사냥감을 추적해 죽이고 손질하는 것이 장황하게 묘사되는데 심지어는 이것도 리처드 2세가 사냥을 즐겼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실상 제3부 전체가 리처드 왕의 과잉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귀족의 여가 활동인 사냥에 대해 지극히 세세하게 서술하느라 긴 글을 할애한

것과 또 한편으로 침실의 모험이 보여주는 가웨인의 남성답지 않음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후자는 리처드 2세의 궁정 신하들이 “연애의 기사들이지 전쟁의 기사들이 아니며 전쟁터보다는 침실에서 더 유능하다”는 토마스 월싱햄의 잘 알려진 비난에 대한 답변일 수 있다. (Bowers 2001, 17-18)

훗데저트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사건인 버틸락의 사냥과 성주 부인의 유혹이 모두 리처드 2세와 그의 궁정에 대한 비판적 시선에서 비롯된 풍자라는 것이다. 바워스의 관점에서는 “아서 왕과 그의 궁정 신하들의 두드러지는 미성숙함”은 리처드 2세의 “사춘기 소년같은 이미지와 1380년대 전반에 걸쳐 리처드 왕의 궁정을 지배했던 사춘기 소년같은 고집스런 태도”를 반영한다(Bowers 2001, 17) 하지만 『가웨인과 녹색기사』에서 눈부시게 전시되는 풍부한 디테일”은 리처드 2세 왕실이 추구하는 궁정성의 가치와 잠재력에 대한 긍정과 지지와 기대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우선 가웨인에 대한 오해부터 살펴보자. 이 성의 모든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맞게 된 손님이 다름 아닌 가웨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대번에 궁정범절의 모범이라는 그의 평판을 떠올린다.

사람들은 옆 사람에게 소곤거렸다.
 “이제 우린 기사다운 행동의 진수와
 고귀한 대화의 훌륭한 표상을 볼 수 있게 됐군.
 가만히 있어도 말의 위력을 알 수 있게 됐다니까.
 예절의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으니 말이야.”

Vche segge ful softly sayde to his fere,
 “Now schal we semlych se sleȝtez of þewez
 And þe teccheles termes of talkyng noble.
 Wich spede is in speche vnspurd may we lerne,
 Syn we haf fonged þat fyne fader of nurture....” (915-919)

그런데 곧 가웨인의 어떤 면모가 그를 말 잘하는 예절의 아버지로 알려지게 했으며 궁 안의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명예와 궁정성으로 인식되었는지 가웨인을 유혹하러 온 성주부인의 공격에서 명백해진다.

가웨인처럼 마땅히 훌륭하다고 여겨지고
 궁정예법을 그리도 완벽하게 체화한 사람이라면
 귀부인과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으면서
 키스를 구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요. 궁정예법에 따르세요.

So god as Gawayn gaynly is halden,
 And cortaysye is closed so clene in hymseluen,
 Couth not lyȝtly haf lenged so long with a lady
 Bot he had craued a cosse, bi his courtaysye. (1297-1300)

세상에 알려져 있는 가웨인은 유능한 “연애의 기사”이다. 더구나 바웬스가 인용한 월싱햄의 조롱에 이어지는 비난이 “무기를 휘두를 때보다 말할 때 더 힘이 있고, 입은 빠르지만 전투에는 느리다”(Walsingham 248)는 것임을 상기하면 훗테저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판은 월싱햄이 대표하는 런던의 비방자들이 리처드 2세의 기사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인식과 같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가웨인이 성주 부인의 성적 유희에 넘어가지 않고 정결을 지키면서도 성주 부인에게 기사도 최상의 예의를 지켜 그녀를 불쾌하지 않게 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못 기사들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아무리 오각뿔(Pentangle)의 기사이자 성모 마리아의 기사임을 자처하는 가웨인이지만 성적 자제력을 발휘해야 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고, 더 나아가 이 자제력을 아서왕의 기사, 즉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으로 치환하는 치밀한 유희의 전략에도 대처해야 했다(Bot þat 3e be Gawan, hit gotz in mynde, 1293). 녹색기사가 “내가 보기에 그대는 단연 이 세상에서 가장 결함이 없는 사람일세”(…sothly me þynkkez/ On þe fautlest freke þat ever on fote 3ede, 2362-2363)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성취를 치하한 것이고 그것은 빈말이 아니다.¹⁷ 가웨인은 궁정예법의 기반 위에서 기사다운 처신과 언변으로 도덕적 위험에서 벗어났다. 연애의 기사의 도덕적 승리다. 버틸락의 또 다른 자아인 녹색기사가 가웨인의 성취를 가웨인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은 긍정적 가치가 포괄하는 도덕성에 대한 그의 통찰력을 보여준다. 이렇듯 녹색기사는 긍정적 가치와 성취에 대해 가웨인보다 한결 더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웨인의 인식과 평가에서 간

¹⁷ 성주부인의 유희과 가웨인의 성취는 원래 성자전의 모티프다. Mann 260-262 참조.

과된 부분을 일깨워준다. 오각뿔의 기사로서 완벽을 지향하는 가웨인이 미처 깨닫지 못한 긍정성의 중요한 측면이 또 있었는데 이것은 가웨인의 유희과 버틸락의 사냥 장면이 상호교차 하는 제3부의 특징적인 서사구조를 통해 드러난다. 롯데저트를 대표하는 사건인 버틸락의 사냥은 삶에 대한 애착이라는 엄존한 야생의 법칙이 지극히 긍정적인 문화 안에 안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 젊은 아더왕의 긍정기사 가웨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긍정성을 문명 대 야만, 용기 대 비겁함, 그리고 너그러움 대 탐욕 등의 이분법적 구도로 인식하고 있다. 죽을 것을 알고도 녹색기사와의 약속을 지키러 가는 것이나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을 앞두고도 도덕적인 원칙을 지키는 가웨인은 과연 훌륭한 기사이지만 삶에 대한 애착도 분명 기사도가 실현되는 게임의 룰의 일부임을 깨달을 일이 남아 있다. 이 수업은 이곳이 워털의 야생의 숲이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세 유럽에서 사냥터는 법적, 행정적으로 강제된 야생지였다. 영국은 노르망디의 윌리엄 시절에도 결코 울창한 숲이 많다고 할 수 없었던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 정복자는 최초로 사냥을 위한 지정보호구역제도를 도입해 숲의 개간과 외부인의 침입을 엄격하게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¹⁸ 사냥은 특권층만 향유할 수 있는 귀족적인 활동이었으며 엄격한 절차와 의식에 의해 행해졌고 부속된 각종 규제와 비유적 의미 때문에 사회적 함의가 풍부했다. 1126행에서 1923행에 걸친 버틸락의 사냥 장면은 중세 사냥 지침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Rooney 158-159). 짐승의 탈주를 막기 위해 초목을 돌려 만든 울타리부터 계절에 따른 사냥감의 종류와 추적 방식 및 순서(1139, 1146, 1170, 1605)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깔끔하게 사냥감을 도살해서 식용을 포함해 각종 용도에 맞게 처리하는 과정은 모두 자연을 문명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묘사되면서 야생과 문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상호침투성이 크게 부각된다. 우선 인간과 동물의 영역분리가 모호해지면서 사냥은 동물의 삶과 죽음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경험이 된다. 중국에는 사슴이 도륙되고 끝까지 대항하던 멧돼지도 처참하게 살육되며 여우는 그 많은 꾀에도 불구하고 도살되는 것이 사냥이지만 이 시는 낫다르게 사냥꾼도 사냥감과 유사한 경험을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한다. 첫날의 사슴 사냥의 결과는 단적으로 “인간의 화살을 피

¹⁸ 중세 유럽의 사냥에 대해서는 Rooney, Marvin, Commins 참조.

한 동물들도”(What wylde so atwaped wyȝes þat schotten, 1167) 결국 사냥 전문가들에게 잡히고 만다는 대목(1168-1170)에서 볼 수 있듯이 필연적으로 이 모든 절차와 기술과 도구가 승리하는 것이 사냥인 듯하다. 그러나 둘째 날과 셋째 날의 대결 양상은 이와는 좀 달리 댓구를 이루는 다음 두 구절로 요약된다.

짐승은 무기를 손에 잡은 사람을 의식했다.

Pe wylde watz war of þe wyȝe with weppen in honde. . . . (1586)

사람은 짐승을 의식하고 조심스럽게 기다렸다.

Pe wyȝe watz war of þe wylde, and warly abides. . . . (1900)

인위적 야생지인 사냥터는 무기를 든 인간이 야성적인 것을 대표하는 야수와 특권적인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며 이것은 귀족, 그리고 무기를 든 자, 즉 남성을 정의하는 의식이다. 그런데 위의 구절은 비유적 어휘 사용과 함께 300행이 넘게 떨어져 있지만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두 문장의 대구법을 통해 동물을 인격화하면서 동시에 인간과 동물을 동일한 처지에 놓고 있다.¹⁹ 사냥감이 은유적으로 인간이 되면서 동물의 죽음은 사냥꾼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사냥감을 죽였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냥꾼이 생명에 대해 행사하는 위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된다. 고기로 전환시켜 음식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나 죽은 멧돼지의 머리를 보여주며 버틸락이 가웨인에게 그날의 성과에 대해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이야기(1626)는 모두 죽음과 죽임의 위력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기념하는 절차이다. 사냥꾼이 동물의 죽음과 죽임에 동참하고 있다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세 사냥과 관련된 담론은 인간이 자연에 질서를 수립하여 재형성하고 경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비인간의 몸에 지배권을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축하하고 기념한다. 하지만 흔히 인간 또한 분명히 몸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다(Yamamoto 187-191). 그런데 『가웨인과 녹색기사』에서는 추적에서 도살과 내장 적출까지, 사냥에 대한 사실적 묘사가 길고 세밀해 죽임의 결과만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도 사냥

¹⁹ 이 시에서 사냥되는 동물의 인격화에 대해서는 Yamamoto 99-131 참조.

꾼이 사냥감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가장 긍정적인 활동 중 하나인 사냥의 초점은 이 시에서는 인간과 야수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데 있다.

또 한편 버틸락의 사냥은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하듯이 침실 장면과 교차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사냥당하는 가웨인의 모습과 잠재적 결말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유도한다. 서사 구조상 가웨인은 성주 부인과 그를 사주한 버틸락의 사냥감이라고 할 수 있고 동물과 인간의 연관성이 확립된 가운데 동물들의 최후가 가웨인의 결말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유혹은 생사가 걸린 시험임을 암시한다. 녹색띠는 치명적인 탓일 수 있었고 가웨인은 결국 실수를 범한다. 임박한 녹색기사의 공격에 불안해 하다가 녹색띠를 두르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 성주부인에게 선물로 받은 녹색띠를 성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간직하면서 약속을 깬 것이다. 하지만 녹색 예배당에서 녹색기사가 가웨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근거인 그의 생에 대한 애착(*for þe lufed your lyf--þe lasse I yow blame, 2368*)은 오히려 가웨인을 버틸락, 그리고 녹색기사가 야생의 세계와 맺는 관계에 동참시킬 수 있다.²⁰ 이 관계는 생명에 좀 더 강화된 통제를 가할 수 있고 침실과 연회장, 즉 궁정 밖으로까지 확장된 정체성을 부과할 수 있다. 목숨을 부지하고자 녹색띠를 이용해 녹색기사가 내리치는 도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술책을 꾸민다는 것은 동물인 여우가 꾀를 써서 사냥꾼의 추적을 피하는 것을 상기시키기도 하고, 또한 사냥꾼이 동물과 마주한 상황에서 전혀 도덕적이지 않은 공격을 행하는 것이나 녹색기사가 머리를 베인 다음에도 생명을 잃지 않는 것과도 상통한다(Crane 173-174). 죽음을 경험한 녹색기사/버틸락에게 생명에 대한 애착은 당연하고 긍정적인 가치이며 홋대저트의 궁정문화에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 야생의 숲에 온 가웨인이 배워가야 하는 황야의 가치요 가르침이다.

가웨인이 침실에서 알몸을 간신히 가리고 성주 부인과 대화나 나누고 있는 동안 버틸락이 사냥터에서 남성성과 전투력을 과시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바워스처럼 리처드 2세 궁정의 기사들이 궁정문화에 심취하면서 남성적이지 못하고 전투력이 부족하다고 한 월성협미의 비난을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가웨인의 도덕적 성취를 폄하하는 독법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시는 인위적 야생지에서 벌어지는 버틸락의 사냥은 제의적 절차 및 고도의 지식

²⁰ 이 판단의 신학적 근거도 견고하다. Putter and Stokes 755 참조.

과 기술로 대표되는 궁정문화의 위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문명과 미개 혹은 야만의 이분법적 사고는 그 위력과 무관함을 보여준다. 월싱햄이 상기시키려는 뜻이 보이는 것은 육체적 힘과 용기와 충성심 같은 기사도의 주요 덕목인데 이런 것에 대한 기대와 요청 속에 간과되는 생에 대한 애착이 결국 힘과 힘의 대결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이 시는 일깨워주고 있다.

3. 야생의 장소, 녹색 예배당과 카멜롯

가웨인이 체서에 온 것은 물론 녹색기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는 ‘예상대로’ 위털의 야생의 숲에 있었다. 그가 있다는 녹색 예배당으로 가기 위해 가웨인이 안내 받은 대로 길을 따라 급경사진 언덕을 내려가 계곡에 다다르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양쪽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높고 날카로운 절벽이 솟아있는 황량한 장소였는데 가웨인은 이곳을 한마디로 “야생적”이라고 보았다(wylde hit him þoʒt, 2163). 『가웨인과 녹색기사』의 제1연에서 제시하는 영국 역사의 영광스러운 계보를 보면 지역과 사람이 동일시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로물러스(Romulus)는 로마(Rome)를 건국했고, 티키우스(Ticius)는 토스카니(Tuskan)를, 랑가버드(Langaberde)는 롬바디(Lumbardie)를, 그리고 부루투스(Brutus)는 브리튼(Bretayn)을 건국했다(8-15). 야생의 숲 한복판에 있는 녹색 예배당이 야생적이면 녹색기사 역시 그런 지형적 특징을 지녀야 한다. 숲에 거주하면서 야생의 속성을 체화한 존재라면 중세의 상상 속에는 야생인(Wild Man)이 있었다. 그는 필사본 삽화, 장식함, 태피스트리, 교회 미술과 조각에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로맨스에서는 종종 기사와 대결하거나 아니면 기사 자신이 잠시 변모되어 동일시되는 존재로도 등장한다(강지수). 녹색 예배당이 야생적인 장소이면 녹색기사는 어떤 형태로든 야생인과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숲속에 살며 물골이 흥측하고 검은 색이나 녹색의 털복숭이로써 거대한 체구에 육체적 욕망만 살아있고 언어 능력이 없으며 몽둥이를 무기로 쓰는 짐승같은 전통적인 야생인만 떠올리면, 이것은 가웨인이 녹색 예배당을 찾아가는 길에서 만난 숲의 괴물(wodwos, 721)로써 기사의 적이기에 퇴치되어야 하는 존재이며 녹색기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Brewer 182, Cooper 275). 하지만 중세 후기로 가면서 로맨스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야생인은 외모에 있어 고대 야생인과의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오히려 기사의 안내자나 조력자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기사 자신이 성숙해지기 위한 조건처럼 일시적으로 야생인이 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녹색기사와 관련해 중요한 울림이 있다.

녹색기사가 야생인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우선 텍스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녹색이 야생인의 색깔이기도 하고 그가 위협적으로 보이는 거구(137-143)라는 사실도 중요한 근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긴 머리와 수염이 남다르다(181-186). 고대 야생인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가 온몸을 뒤덮은 털이고 이웨인과 올페오, 말로리의 랜스롯과 트리스트람 등 잠시 야생인이 되었던 로맨스의 영웅들 역시 야생의 숲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비록 전신은 아닐지라도 전반적으로 털이 많아진 모습이다. 녹색기사 역시 풍성한 털이 단연 눈에 띈다. 그의 머리털은 어깨를 다 덮고 가슴까지 내려오는 수염과 함께 팔꿈치 위의 상체를 모두 덮기에 그는 분명 아서왕의 기사들과는 구별되는 외관을 가지고 있다. 녹색기사가 가웨인의 일격을 받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목덜미를 드러내는 장면은 그의 긴 머리카락을 뚜렷하게 기억시킨다(417-420). 물론 녹색기사의 머리털과 수염은 무성하게만 자라도록 방치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길이로 잘 다듬어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수염은 그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이리저리 휘날릴 정도로 길다(306).

그를 야생인의 한 부류로 볼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그와 말과의 유사성이다. 야생인 기사는 동물과의 조화 혹은 일체성 또한 고유한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시에서 녹색기사가 타고 온 녹색 말의 색이 언급될 때마다 그 녹색은 우연의, 혹은 별개의 녹색이 아니라 녹색기사의 녹색으로 지칭되고 다른 모든 외관상의 특징 역시 녹색기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설명된다(173-178). 말의 갈기도 “녹색기사의 머리털과 유사하게” 잘 다듬어져 있다(187-188). 그와 말은 일체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반복적으로 함께 묘사될 뿐 아니라 몇 차례 같은 행에서 명쾌한 두운을 이룬다(196-198, 232-233, 303-304). 녹색기사의 녹색은 복합적이고 심지어는 상충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와 짐승인 말을 더욱 가깝게 밀착시키고 이미지를 중첩시키는 특수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²¹ 아마모토는 버털락이나 녹색기사가 가웨인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움직임이 크고

²¹ 녹색기사의 녹색에 대해서는 평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한 Sadowski 참조.

많다는 사실 역시 그의 동물성을 감지하게 하는 요인이며 따라서 야생인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한다(172-174). 녹색 기사를 찾으러 나선 가웨인이 당연하다는 듯이 야생의 숲으로 왔다는 것은 그의 모습이 아서왕의 기사들에게 야생인을 연상시켰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물론 녹색기사가 야생인을 연상시킨다는 사실보다 더 명백한 것은 그의 궁정성이다. 카멜롯을 방문했을 때의 그의 복장, 거동과 자세, 언변은 과연 정교함과 세련됨의 극치였다. 크레인의 말마따나 이런 것이 모두 완벽했기 때문에 도저히 양립할 수 없어야 하는 그의 야성의 흔적들, 즉 거대한 체격, 특이한 색깔, 대담함, 폭력성은 그를 그만큼 더 두려운 대상으로 만든다. 아서왕의 기사들 앞에서 녹색기사가 펼친 퍼포먼스는 기사가 추구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 즉 야성이 궁정성 안에서 정체를 이룬 상태에 관한 것이다.

녹색기사는 그의 야성 때문에 다른 궁정기사들보다 덜 훌륭해지지 않는다. 아니, 그는 자기가 훨씬 더 훌륭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선 이 “수염도 자라지 않은 아이들”(berdlez chylder)보다 어른이고, “무기를 맨 사람들 중 가장 우수하고 강한 자들”(burnes best ... Stifest under stel-gere)이라는 그들에 대한 평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목을 베었어도 살아있다는 것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259-260, 280). (Crane 168)

크레인에 의하면 이런 측면에서 여타 궁정 막간극이나 춤, 마상시합 등에 등장해 야성의 일탈성이나 방종함을 전면화하는 야생인들의 퍼포먼스와는 달리 녹색기사의 모습에는 교훈적인 측면이 있다. 야성을 궁정성 안에 확고하게 안착시킨 존재를 통해 그곳에 있는 젊은 왕과 기사들은 가장 우월한 궁정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카멜롯은 화려한 궁정문화를 구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집단에 대해 왕이 아직 어리며(childgered, 86), 젊은 피가 끓고 생각이 즉흥적(bisied him his 3onge blod and his brayn wylde, 89)이라고 묘사함으로써 아직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암시한다. 여기서 아서왕의 생각이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바뀐다는 것은 야생인의 특징으로 언급한 분주함을 떠올린다. 카멜롯에도 이미 야성과 궁정성이 병존하고 있으며 이런 야성이 이제 더 높은 차원의 궁정성 안에서 정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일구어놓은 성과도 많지만 더 우월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내자, 조력자가 필요한데 녹색기사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졌음을 녹색 예배당에서 그가 가웨인에게 말한 다음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네가 걸치고 있는 그 띠는 내 의복이라네.
 내 아내가 그대에게 준 것임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
 그대의 키스와 그대의 행동, 그리고 내 아내의 유혹
 내가 다 잘 알고 있네. 내가 직접 시켰어.
 자네 시험하라고 내가 보낸 걸세.

.. hit is my wede þat þou werez, þat ilke wouen girdel.
 Myn owen wyf hit þe weued, I wot wel forsoþe.
 Now know I wel þy cosses and þy costes als,
 And þe wowyng of my wyf. I wro3t hit myseluen.
 I sende hir to asay þe.... (2358-2362, 필자 강조)

여기서 녹색기사/버틸락은 가웨인을 시험한 행위주체가 바로 자신임을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하고 있다. 뒤에 가면 가웨인의 모험과 관련해 예상치 못했던 배후인 물건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만 거기에는 성주 부인의 유혹이나 녹색띠와 관련된 부분은 없다. 특별히 두운을 위해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1인칭 대명사를 이처럼 반복하고 있으니 마치 이 장면에서 모든 사건의 행위주체가 모호해진다는 것을 감안이라도 한 듯 착각이나 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정도다. 그리고 그 시험은 가웨인을 파멸시키겠다는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가치를 충분히 인지 못하는 성취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족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음을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²²

진정으로 내가 보기에 그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흠이 없는 사람일세.
 흰색 롱 옆에서 진주가 빛나듯이

²² 일 년 전에도 사실 녹색기사의 도전은 카멜롯의 파괴가 목적이 아니었다. 원탁 기사들에 대한 평판을 실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다.

가웨인은 다른 기사에 그 가치가 비할 바가 아니야.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그대에게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으니 신의가 부족했네,

...sothly me thynnkkes

On the faultlest freke that ever on fote yede.

As perle bi the quite pese is of prys more,

So is Gawayn, in god fayth, bi other gay knyghtes.

Bot here yow lakked a lyttel, sir, and lewte yow wonted; (2362-2366)

가웨인의 과실은 이렇게 단 한 줄로 간단하게 지적해놓고도 금방 가웨인을 변호해준다.

그렇지만 그건 (녹색 피의) 공예기술이나 유혹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자신의 목숨을 아꼈기 때문인지라 자네를 그리 탓하지 않네.

Bot þat watz for no wylyde werke, ne wowyng nauþer,

Bot for þe lufed your lyf---þe lasse I yow blame. (2367-2368)

앞에서 보았듯이 다른 로맨스에서도 야생인이 기사의 성숙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웨인과 녹색기사』에서도 녹색기사가 완벽한 궁정기사의 모습을 추구하는 가웨인의 안내자 및 조력자가 되고 있다. 정작 적개심을 가지고 아서왕 궁정의 파멸을 도모했던 사람은 아더왕의 이부 자매요 가웨인의 이모인 물건이었으니 그는 멀리 떨어진 위령의 야생의 숲 출신이 아니라 바로 카멜롯의 내부자였다.

녹색기사의 찬사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가웨인은 자신이 녹색피를 몰래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발각된 것을 알자 수치심에 어찌할 줄 모른다. 그리고는 녹색피를 영원한 수치의 기호로 삼아 두르고 다니겠다고 한다. 카멜롯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모험을 회고하면서 그는 다시 한 번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수치가 결코 자신을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가웨인 눈에는 이제 오각뿔의 덕목이 아니라 수치만이 자기에게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멜롯의 동료 기사들은 가웨인의 작은 실수보다는 커다란 성공을 강조한다. 그들이 보기에는 가웨인 만큼 한다는 것은 실패이기는커녕 크나큰 성공이다. 따라서 그들은 가웨인이 수

치의 표시로 녹색띠를 두르고 다니겠다고 그들도 같이 녹색띠를 두르되 명예의 상징으로 그리 하겠다 한다. 녹색기사와 아더왕의 기사들은 가웨인의 성취를 인정하고 녹색띠를 명예로운 것으로 만들면서 그의 성취의 근간에 있는 긍정적 가치를 기념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녹색띠가 야생지의 성주 버틸락의 것이며 그를 통해 가웨인이 죽음에 대한 각성과 생명에 대한 강한 긍정을 경험했기에 야성의 일부를 몸에 걸치게 된 것이기도 하다. 젊은 카멜롯이 더 위력있고, 더 우월한 긍정성을 위한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딘 것이다. 만일 바워스의 주장처럼 『가웨인과 녹색기사』의 미성숙한 아서 왕과 그의 궁정 신하들이 리처드 2세와 그의 측근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체셔 출신의 시인은 리처드 2세가 추구하는 긍정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력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가웨인과 녹색기사』, 긍정성, 리처드 2세, 체셔, 워털, 야생의 숲, 황야, 야생인, 지리적 상상력

인용문헌

- 강지수. “황야의 기사: 이웨인과 올페오.” 『영미문학연구』 16 (2009): 93-117.
- Andrew, Malcolm and Ronald Waldron ed. *The Poems of the Pearl Manuscript*. Berkeley and Los Angeles: U of California P. 1978.
- Barratt, *Against All England: Regional Identity and Cheshire Writing, 1195-1656*. Notre Dame, IN: U of Notre Dame Press, 2009.
- Bennett, Michael J. *Community, Class, and Careerism: Cheshire and Lancashire Society in the Age of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Cambridge: Cambridge UP, 1983
- . “The Historical Background.” Brewer and Gibson. 71-90.
- Bowers, John, M. *The Politics of Pearl: Court Poetry in the Age of Richard II*. Cambridge: D.S. Brewer, 2001.
- . *An Introduction to the Gawain Poet*. Gainesville, FL: UP of Florida. 2013.

- Brewer, Derek and Jonathan Gibson, ed. *A Companion to the Gawain Poet*. Cambridge: D. S Brewer, 1997.
- Bernheimer Richard. *Wild Men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Mass.:Harvard UP, 1952.
- Crane Susan. *The Performance of Self: Ritual, Clothing, and Identity During the Hundred Years War*.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2002.
- Dyas, Dee. "Wilderness is Anlich lif of Ancre Wununge: The Wilderness and Medieval Anchoritic Spirituality." 19-33.
- Dyas, Dee, Valerie Edden and Roger Ellis, eds. *Approaching Medieval English Anchoritic and Mystical Texts*. Cambridge: Brewer, 2005.
- Elliott, Ralph. "Landscape and Geography." Brewer and Gibson. 105-118.
- Harrison, Robert. *Forest: The Shadow of Civilization*. Chicago: U of Chicago P. 1992.
- Hanawalt, Barbara and David Wallace, eds. *Medieval Crime and Social Control*.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99.
- Ingham, Patricia Clare. *Sovereign Fantasies: Arthurian Romance and the Making of Britain*.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2001.
- Knight, Rhonda. "All Dressed Up with Someplace to Go: Regional Identity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Studies in the Age of Chaucer* 25 (2003): 259-284.
- Lavezzo, Kathy. *Angels on the Edge of the World: Geography, Literature, and English Community, 1000-1534*. Ithaca: Cornell UP. 2006.
- Le Goff, Jacques. "The Wilderness in the West." *The Medieval Imagination*. Trans. Arthur Goldhammer. Chicago: U of Chicago P, 1985. 107-131.
- Mann, Jill. "Courtly Aesthetics and Courtly Ethics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Studies in the Age of Chaucer* (2009): 231-265.
- Mathew, Gervase. *The Court of Richard II*. Lodon: John Murray, 1968.
- Marvin, William. "Slaughter and Romance: Hunting Reserves in Late Medieval England." Hanawalt and Wallace. 224-252.
- McIntosh, Angus. "A New Approach to Middle English Dialectology." *English Studies* 44 (1963): 1-11.
- Putter, Ad. *An Introduction to the Gawain-Poet*. London: Longman, 1996.
- .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and French Arthurian Romance*. Oxford: Oxford UP, 1995.
- Putter, Ad and Myra Stokes. "The Linguistic Atlas and the Dialect of the Gawain Poems."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106 (2007): 468-491.

- , eds. *The Works of the Gawain Poet*. London: Penguin, 2014.
- Rooney, Anne. "The Hunts." In Brewer and Gibson.
- Rudd, Gillian. "'The wilderness of Wirral'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Authriana* 23 (2013): 52-65
- Sadowski, Piotr. *The Knight on His Quest: Symbolic Patterns of Transition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Newark: U of Delaware P, 2004.
- Savage, Henry. "A Note o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700-2." *Modern Language Notes* 46 (1931): 455-57.
- Saul, Nigel. *Richard II*. New Haven: Yale UP, 1997.
- Saunders, Corinne. *The Forest of Medieval Romance*. Cambridge: Brewer, 1993.
- Stow, George. "Richard II in Thomas Walsingham's *Chronicles*." *Speculum* 59 (1984): 68-102.
- Walsingham, Thomas. *The Chronica Maiora of Thomas Walsingham, 1376-1422*. Trans. David Preest and James Clark. Woodbridge: The Boydell Press, 2005.
- Yamamoto, Dorothy. *The Boundaries of the Human in Medieval English Literature*. Oxford: Oxford UP, 2000.

ABSTRACT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The Wilderness of Wirral**

Ji-Soo Kang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of the poem's explicit choice of destination for Gawain's adventure, "the wilderness of Wirral." The wilderness in an Arthurian romance is a conventional space of adventure and growth. This particular space in this poem is created in the geographically specific Wirral which happens to be part of Cheshire where our poet most likely is from and where Richard II based his political and military support during his reign. This paper argues that the romantically charged space of wilderness is also an apt metaphor for Cheshire as the region as a whole was historically perceived as geographical, political and cultural periphery, dangerous but also beneficial. With its purely negative connotations, of its being remote and intractable, the wilderness may also be a reflection of the hostile and prejudicial view many Londoners bore against the region in the face of the king's open favoritism and other criticism the king and his court were drawing. The poem, it shall be seen, explore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courtliness through all kinds of wildness characterized by its spatial manifestation, wilderness. How this theme is played out against the implied Cheshire as wilderness in this Arthurian romance by a poet who is known for his celebrations of courtly values and splendor in his other works during the time of a king who so vigorously promoted courtly culture is the focus of this study.

Key Words |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courtliness, Richard II, Cheshire, Wirral, wilderness, wild man, geographical imagination